

A look into the Phenomenon of Multi-religious Culture in Korea

Jijoong Lee *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how Korea's multi-religious culture coexists, focusing on several examples. In this way, we could look the clues that can solve the conflict and friction inter religions in Korean society. And as a solution, I would like to raise the need for religious education to respect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Contents] Korean society is a multi-religious coexistence society that is difficult to see in the world religious history. According to the 2021 Korea Research Survey, Protestants accounted for 20% of the total population, 17% Buddhists, and 11% Catholics, and 50% of the total population has no religion. This phenomenon is also common among Korean family members. In this way, Korea can be said to be a model for a modern multi-religious society.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 the religious composition of Koreans, second, those religions are undergoing a process of secularization, and third, freedom of religion. However, even in Korean society, there are serious conflicts and strife between religions. And this conflict also exists among family members. Then, how can Korean society continue to have an order of religious coexistence?

[Conclusions] I believe that religions in our society should continue to have dialogue to understand each other. In addition, I believe that the order of religious coexistence can be solved by teaching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This is to enable the next generation to have the eyes of religious literacy. Finding such an order is very important for atheists who make up 50%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for finding the key to resolving religious conflicts in the global society.

[Keywords] Multi-religious culture, coexistence, religious pluralism,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literacy

* Corresponding to Jijoong Lee(Professor, Counseling Psycholog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yijjoong@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한국의 다종교 문화 현상 들여다보기

이지중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한국의 다종교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몇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의 공존의 문제,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종교 간의 차이성 존중을 위한 종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한국 사회는 세계종교사에서 보기 어려운 다종교 공존 사회이다. 2021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불교는 17%, 가톨릭은 11%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0%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은 현대 다종교 사회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의 종교 중층성, 둘째, 종교가 세속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종교의 자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간 불협화음은 심각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 갈등은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면 종교 공존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을까.

[결론] 논자는 우리 사회의 종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 공존의 질서는 공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풀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후속세대들이 종교 문해력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질서 찾기는 인구의 50%나 되는 무신론자들을 위해서도, 지구촌 사회의 종교갈등 해소를 위한 열쇠 찾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다종교 문화, 공존, 종교 다원주의, 종교 교육, 종교 문해력

I. 들어가기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종교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불교는 17%, 가톨릭은 11%,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2%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0%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¹⁾

이처럼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종교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로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니 주도적인 종교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두 종교는 전혀 다른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두 종교를 합쳐서 주도성을 말하긴 힘들다. 오히려 무종교자가 전체 인구의 50%로 차지하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18-29세 응답자 중 67%가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도 점점 탈종교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서양의 종교들이 서로 엇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무종교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종교의 정체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종교 정체성의 구성 요소(Kim, 2013: 5)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종교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여러 종교의 공존 문제와 더불어 종교의 본질인 각 종교의 절대신념체계와 절대신념체계들이 자신의 절대성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는 마찰과 혼동에도 있다(Yoon, 2009: 167). 이러한 눈으로 한국의 다종교 문화를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질서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어느 특정 종교가 자신의 절대성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러한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은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모두가 애를 써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종교 문화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종교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더구나 무종교 인구가 이미 50%를 넘고 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탈종교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종교적 지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라 하겠다.

이에 논자는 한국의 다종교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몇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종교 간의 공존,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종교 간의 차이성 존중을 위한 종교 교육의 필

1) Lee, D. H. (2021). Korea Research. Religious Perception Survey. Status of religious population and religious activities from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186>.

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율 약 97% 그리고 대학진학율 약 73%까지를 이루고 있는 한국에서 종교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이른바 ‘종교 문해력’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종교의 다원주의적 질서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한국의 다종교 문화

오늘의 한국 사회의 다종교 문화 현상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리서치는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50%는 종교가 없고, 20%가 개신교를, 불교는 17%, 가톨릭은 11%의 분포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종교의 다양성은 한 가족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세 가족과 군대의 종교 생활을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한 가족 내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의 공존의 양태를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종교 간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A 가족의 예시

A가족은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다. 이 표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가족 개개인들의 종교와 개종의 경험이다.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종교 문화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A가족 구성원들의 종교
<table 1> A Family members' religion

	가족구성	나이	현종교	이전종교	직업	비고
1	아버지	작고	불교	불교		
2	어머니	85	기독교	불교		개종
3	첫째 딸	62	불교	불교		
4	첫째 사위	64	불교	불교		
5	둘째 딸	작고	무교	무교		친불교
6	아들	58	가톨릭	기독교		개종
7	셋째 딸	52	기독교	불교		개종
8	셋째 사위	58	기독교	무교		

우리는 위의 도표에서 한 가족의 종교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주요 종교와 무교까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가족 내의 종교로 인한 불협화음 없이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 가족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어머니의 개종이다. 이 분은 불과 1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불교 신자였다고 한다. 작고한 남편과 함께 불교에 대한 종교적 신심이 돈독한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 지자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셋째 딸이 개종을 권하여 최근 집 근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셋째 딸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한때 비구니가 되기로 마음먹고 사찰을 다녔던 적이 있는 불교 신자였는데, 남편의 직장을 따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살게 되면서 그 지역의 교민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고, 그 적응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 셋째 딸이 한국에 나들이를 하면서 어머니의 노년에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 어머니께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의뢰하였고, 이에 어머니는 집 근처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불교 신자인 첫째 딸 내외는 크게 환영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지방에 거주하는 탓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보지 못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차에, 매 일요일마다 옷을 차려입고 외출을 하게 된 어머니의 교회 나들이가 그저 반갑기만 하다고 한다. 또한 아들의 경우는 중학교 시절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살다가, 그 후 40대에 이르러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을 좋아하는 그는 그곳에서 만나는 몇몇 승려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가톨릭 성당에서 듣는 복음도 좋지만, 깊은 산 산사에서 차 한잔과 더불어 나누는 승려들과의 대화에서도 큰 마음의 위안과 더불어 종교적 지혜를 얻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그의 종교적 태도는 부모의 종교가 불교이었던 영향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족마다 종교가 각각 다르지만 그 때문에 가족 간의 불협화음은 없다고 한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종교 생활에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종교적 신념의 선택에 기꺼이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찰에서 둘째 딸의 49제 제사를 지낼 때, 형제자매들이 모두 참석하여 망자의 혼을 위로해주었다고 한다. 물론 종교적 신념이 불교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붓다에게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를 문제 삼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승려가 지옥에서도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을 망자를 위해 부를 때, 가족 구성원들 모두는 망자를 위해 열심히 지장보살을 외쳤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 제를 주관하는 승려가 사전에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적 신념을 파악하고, 그들이 자신의 종교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제사를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은 지금 부처님께 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망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와 같은 사전 안내를 하면서 제사를 진행한 것이다.

2. B 가족의 예시

B 가족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한 가족이다. 이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는 다음의 표와 같다. 눈여겨 볼 점은 부모들의 종교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 종교를 보면 둘째 딸 혼자만 불교 신자이고, 첫째 딸 부부는 기독교, 셋째 딸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B가족 구성원들의 종교
<table 2> B Family members' religion

	가족구성	나이	현종교	이전종교	직업	비고
1	아버지	85	불교	불교	은퇴	
2	어머니	83	불교	불교	주부	
3	첫째 딸	55	기독교	무교	교사	
4	첫째 사위	55	기독교	기독교	공무원	
5	둘째 딸	53	불교	무교	회사원	
6	둘째 사위	56	무교	무교	회사원	
7	셋째 딸	50	가톨릭	무교	교수	

주목해 볼 것은 첫째 딸의 종교 선택이다. 무교였던 그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결혼을 하면서 시댁의 종교에 따르기로 한 것 때문이었는데, 첫째 딸의 종교 선택에 대해 부모들과 나머지 가족들은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둘째 딸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고 있고, 셋째 딸은 가톨릭 계통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 인연으로 가톨릭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사찰에 가면 붓다께 자연스럽게 절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가족 간에도 다양한 종교가 존재함에도 이 가족 역시 매우 화목한 집안이라고 한다. 가족끼리 잦은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로 인한 불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종교를 응원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3. C 가족의 예시

C가족 또한 한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다. 특이한 점은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점인데, 어머니1이 어린 자녀들, 즉 딸3까지 세명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수가 8명으로 다소 많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도 매우 다양하다. 한 가족 내에 기독교, 무교, 무속, 불교 그리고 가톨릭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비구니

<표 3> C가족 구성원들의 종교
 <table 3> C Family members' religion

	가족구성	종교	나이	직업	비고
1	아버지	유교	작고		
2	어머니1	기독교	작고		
3	어머니2	불교, 무속	92		
4	딸1	기독교	83		
5	딸2	불교	78		
6	딸3	기독교	74		목사 부인
7	딸4	불교	70	승려	
8	딸5	무교	68	전업주부	
9	아들1	불교	65	사업	부인은 가톨릭
10	아들2	불교	63	교수	
11	딸6	기독교	60	회사원	시댁이 기독교

승려도 있고 목사 부인도 있다. 그리고 9의 아들 1의 부인은 남편의 종교와는 달이 또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 가족의 종교 선택을 보면 어머니 종교의 영향이 다소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딸 1과 딸 3은 어머니 1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딸 4와 아들 1, 2는 어머니 2의 영향으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딸 2, 5, 그리고 6은 그런 영향에 관계없어 보인다.

재밌는 것은 종교가 다른 딸1과 딸 2 그리고 딸 6도 비구니 승려인 딸 4에게 ‘스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우를 하고, 그녀의 사찰에 오면 부처에게 절을 한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 딸 4인 비구니 승려의 해석은, 그들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고 그렇다 보니 종교는 달라도 어머니와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딸 6은 시댁의 종교에 따라 지금은 기독교이나,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가족 역시 종교 문제로 가족 간 불화는 지금껏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비구니 승려는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하고 설명하였다.

4. 한국군의 종교 생활의 예시

한국의 전형적인 다종교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군대이다.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들은 모두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하여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한다. 자연스레 군대에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남성들이 그리고 자원 입대한 여성들이 모여 생활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훈련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군대 내 종교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요일 아침, 아침 식사를 마치면 내무반에는 종교 생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이 나온다. “종교 생활을 할 병사들은 오전 9시까지 연병장으로 모이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나오면 병사들은 즉석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의논한다. 대부분 그 판단 기준은 ‘어디를 가면 더 맛있는 식사와 간식거리를 주느냐’ 이다. 여기서 ‘어디로’의 뜻은 교회, 사찰 그리고 성당 중 한 곳을 말한다.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가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종교가 없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또는 종교가 있으나 다른 종교 행사의 선택에 큰 부담이 없는 병사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선택에 따라 맛있는 간식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간식은 대체로 그들이 일요일이면 그렇게 먹고 싶어지는 동그란 구두약처럼 생긴 달콤한 빵, 초코파이다.

물론 한국의 모든 군대에는 그 규모에 따라 위의 세 종류의 종교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병사들의 종교의 선택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무신론자의 비율이 50%인 것도, 그리고 그 비율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매우 높다는 것도 이러한 군대 내 종교 생활 문화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군대 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다양한 종교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병사들의 군대 내 종교 체험이 한국의 다종교 문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교적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복무기간 중 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선택의 자유에는 종교 생활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가족 내 그리고 군대 내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유와 그 단초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C가족의 비구니 승려가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라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군의 종교 생활에서 그 누구도 병사들의 종교 선택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이 타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5. 한국 사회의 종교 갈등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족의 사례와 군대 내 종교 생활을 들어 한국의 다종교 문화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 또한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달라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사 때만 되면 ‘이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이다, 아니다 우상숭배다’라는 이유로 싸우는

가족이 드물지 않고, 종교가 다르면 아예 자식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족, 자녀나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가족 등이 존재한다. 사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종교 강요의 문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 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 묻자 중고생의 19.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28.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5명 중 1-2명 이상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종교 강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Kim, 2018).

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도 종교 내에서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기독교인에 의한 불상이나 법당 내지는 전통 종교의 사당 등의 훼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²⁾ 그리고 최근 기독교인들에 의한 이슬람사원의 건축 반대 시위도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마찰과 갈등이라 하겠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의한 불교 탄압이 극심했고, 조선 후기에는 유교에 의한 가톨릭 박해가 매우 심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는 주로 개신교와 전통종교 사이에 벌어진 종교 갈등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지금도 진행형이다(Kang, 2003: 2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은 다종교 문화 사회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의 어느 종교도 어느 종교인도 그리고 종교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종교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하겠다.

III. 한국의 다종교 문화의 공존 이유와 필요성 살펴보기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종교적 신념의 다름으로 인하여 가족 사이에서도 그리고 종교 사이에서도 갖가지 마찰과 불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종교 문화 사회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종교 다문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이 매우 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독교, 불교 그리고 가톨릭이 비슷한 규모로 각각 종교 인구의 3/1씩을 나누어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 우선 그 공존의 이유

2) 종교 간의 갈등의 예는 2016년 1월 중순 한 개신교 신자에 의해 일어난 사찰의 불당 훼손 사건을 들 수 있다. 그 개신교 신자는 경북 김천 개운사의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훼손하고 스님에게 지옥에나 가라며 폭언하였는데, 이에 개신교 목사이자 교수인 손모 교수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불자들에게 사과와 편지와 함께 ‘개운사 돕기 모금운동’을 펼쳤다. 이에 당시 손 교수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은 그를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며 파면 처분하였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리하고 복직하였다. 하지만 2023년 오늘에도 여전히 그와 대학 간의 긴장 관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사태는 종교 내의 갈등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이다. 김종서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는 여러 종교전통들이 그들 각자의 전통 등을 유지하면서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종교는 한국인의 심성을 근거로 하여 여러 종교전통들의 성분들이 완전히 뒤엉킨 복합물(composite religion)이다(Kim, 2013: 2-3). 그는 이것을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의 이유로 보고 있다. 다음의 글은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종교(religion)’라는 말을 잘 아는 서양인들에게는 좀 이상하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종교’라는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인간보다 높거나(superhuman), 인간보다 낮거나(infrahuman) 또는 아주 더 넓게 보면, 인간 밖에 있는(extra-human) 어떤 현상까지를 붙들거나 또는 붙든다고 믿는 모든 관계(relation)를 포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좋다고 본다... 모든 한국인의 심성(Korean mind)에는 하나의 뒤범벅인 전체(a jumble of the whole)가 있다. 즉, 논리적으로는 서로 논박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신행(cults)들 사이에 적대감은 없다. 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서로 친숙해져서 일종의 종교적 복합물(a sort of religious composite)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개개인들은 나머지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성분들(ingredients)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복합 종교(composite religion)의 어느 한 양상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한국인은 사회 속에 있을 때는 유교도(Confucianist)이고, 철학적이 되면 불교도(Buddhist)이고, 곤경에 처했을 때는 정령숭배자(spirit-worshipper)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Kim, 2013:1에서 재인용).

이 글은 서양 선교사로 19세기 말에 한국에 왔던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의 글이다. 물론 오늘의 한국의 종교 현상에 대한 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국 종교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 본다. 사실 헐버트가 해석하였듯이 한국인들은 때로는 유교인, 때로는 불교인 그리고 때로는 정령 숭배자로서 산다.

불교가 국교이던 고려 시대에도 불교는 한국의 전통신앙인 무속신앙을 존중하여 사찰 내에 무속신을 모시는 사당을 지었고, 그 사당은 오늘의 사찰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교가 국교이던 조선 시대에도 불교는 여성 중심의 민중들, 그리고 양반과 왕실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던 까닭에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여러 종교를 하나의 복합물로 융합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종교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종교에 얹혀있는 종교 중층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듯 한국인에게 있어 종교는 ‘여러 종교로 구성되어있는 다원적인 복합물[religious

composition]이기에, 답답한 곤경에 처했다고 여겨지면 한국인들은 타고난 팔자를 탓하고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무속), 현실 자체를 사람다워지는 이상적 기준 덕목에 의해 반성하거나(유교), 환상이라고 깨달아 부질없다고 부정해버려 마음을 비우고(불교) 살아낸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인 고통이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것이어서 이른바 종말론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견디어 낼만 하다고 여기며 헤쳐 나가게 된다(기독교)(Kim, 2013: 3). 한국인들은 생활 속에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 보다는 수용하며 섞여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이다(An & Yoo, 2010: 198). 이러한 한국종교의 다원성과 중층성 까닭에 오늘의 한국인들은 한 가족임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종교에 관계없이 한국인들 중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사주, 궁합을 보고 택일을 하기도 한다.

2. 종교의 세속화와 사회윤리

다음으로 한국의 다종교 문화의 공존 필요성은 종교의 세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종교의 세속화란 오늘의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의 신성성은 상대화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각 종교는 자신의 신념 체계의 절대적 신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Yoon, 1994: 22-23)는 뜻이다. 이러한 종교의 세속화 과정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세속화된 종교들은 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타 종교의 그것보다 절대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종교적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민주사회의 사회규범 내지는 윤리는 전통사회의 그것처럼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가치관에 근거한다(Yoon, 2009: 171). 달리 말하면 오늘의 한국의 종교들은 조선시대의 유교나 중세 유럽의 기독교처럼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종교들은 모두 현대사회라는 경기장에 등장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첫째,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은 어느 종교가 현대사회라는 경기장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지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지성적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특정한 종교적 교리나 신념이 좌우할 수 없는 역사적 단계에 왔다. 둘째, 현대사회라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모든 종교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평등한 단체이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된 현대의 상대주의에 의하면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보다 그 세계관이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Yoon, 1994: 22-23). 종교 다원주의에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긴다(Paul Knitter, 1986: 48-98).

이렇게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자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 종교들도 종교 간 대화로서 화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양심은 종교의 갈등과 마찰로 인하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용인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종교들은 현대사회의 경 기규칙을 지켜서 서로간의 관계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종교 간의 대화는 현대사회와 역사가 종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Yoon, 1994: 49-50).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 종교가 자신의 절대적 신념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종교간 마찰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종교는 도태의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이미 종교는 상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논고하였던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생활이나, 강의석씨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종교계에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가치관, 즉 세속화된 종교의 성격과 우리 사회가 종교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질서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 종교의 자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간략히 말하면 종교인이든, 무신론자로 남든 그것은 개인의 실존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내적 정신적 자유로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자유(Kim, 2010: 172)이기 때문이다. 이를 논하기 전에 우선 개념정리부터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종교의 자유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이고, 둘째는 ‘신앙행위의 자유’이다(Yoon, 2009: 170).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종교의 자유 개념
<table 4> Concept of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개념	1) 신앙의 자유	내적 양심의 자유	보장
	2) 신앙행위의 자유	a)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	보장
		b)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	책임수반

첫 번째의 신앙의 자유는 내적 정신적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천부적 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자유로 인정받아 왔다. 양심의 자유란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믿음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상의 자유의 하나이며 또한 종교 자유의 근본을 구성하는 자유이다(Kim, 2010: 172). 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개인은 자신의 삶의 실존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가족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갈등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가족의 이 자

유에 의한 종교적 신념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의 자유는 다종교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의 신앙 행위의 자유는 조금 더 갈라서 보아야 한다. 먼저 a)의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앙 행위에 관한 자유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자유 또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자유이다. 오늘의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에 나서는 신도가 매우 많고, 일요일 예배 후에는 점심을 나누어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 불교사찰의 전통과 매우 흡사한 것인데, 이러한 오늘의 한국 교회의 관습 역시 주요한 신앙 행위의 한 가지로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b)의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 종교의 대사회적 행위는 사회규범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종교의 자유 역시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종교 행위의 대사회적 책임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세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논고한 것처럼 오늘의 한국의 종교들은 현대사회라는 경기장에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여 경쟁하는 입장에 서있다. 잘 알다시피 오늘의 한국 사회의 사회규범은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Yoon, 2009: 170-171).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가치관에 근거한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오늘의 사회라는 경기장의 규칙과 그것이 요구하는 예의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모든 종교적 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거는 2004년 강의석씨가 제기한 ‘퇴학처분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도 뒷받침 된다. 이 사건은 2004년 서울 대광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것이다.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은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광고등학교는 기독교계 종립학교로서 당시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이나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있었다. 이에 당시 학생회장이던 강의석씨가 당시 학교 측에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지 말고 종교의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주장하다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의석씨는 45일간의 단식과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위를 하였고, 서울 북부지법에 ‘퇴학처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종교사학의 자율성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 즉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종교 교육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고, 강씨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YTN & Digital YTN, 2010.04.22. 기사). 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m.ohmynews.com, 2010.4.22. 기사).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같은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

다(Lim, 2008: 261-262). 강의석씨 사건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사회에서 종교적 행위가 지켜야 할 책임, 즉 종교가 오늘의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규칙과 예의에 대한 것들을 판시한 것이라 하겠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가 논고한 바와 같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다. 종교 인구의 분포도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가톨릭이 각각 3/1 정도로 나뉜다. 더구나 무종교 인구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비율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어느 종교도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 보다는 수용하며 섞여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였다. 이러한 한국인의 삶의 태도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종교 다문화 현상과 한국인의 종교 중층성의 이유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종교적인 마찰과 불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종교의 다원성과 중층성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의 이러한 종교 다문화 공존 현상은 종교의 세속화에서도,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또한 한편으로는 종교 간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고 넓게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한국의 종교 다문화 현상이 앞으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논자는 그 해답을 종교 간 대화와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은 현재 한국종교문화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가 종교인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 무지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종교적 차원의 깊은 상호 이해가 진행된다면, 종교 간의 갈등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Kim, 2001: 39-41). 더구나 종교가 보다 나은 공동의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도(Cha, 1990: 556), 그리고 ‘세속적 합리성’³⁾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는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다른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에 기꺼이 경청하는 자세’를 위해서도 종교 간 대화는 21세기 다원적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Choi, 2014: 94).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고교 진학율 약 97%, 그리고 대학 진학율 약 73%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종교학 수업을

3) 오늘의 한국 사회의 사회규범은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가치관에 근거한다.

통해 후속세대들이 ‘종교를 어떻게 읽어 낼 것인가’라는 종교 문해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교육으로써 그들이 종교가 지니고 있는 지혜와 사회적 역할과 기능 등을 익힐 수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종교의 신념 체계를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그 차이를 비판적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특히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무종교인을 위한 종교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종교는 일방적으로 미신이라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무시당할 수 없는 인류의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학 교과 강의에 대한 이러한 논자의 제안은 지금의 한국의 현실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종교를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은 전국 중고교의 약 25%를 차지하는, 종교기관이 설립한 종립 학교이고, 종립 학교의 종교담당 교사는 그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종교학을 강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의 특성상 공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종교학 교과를 강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의 대부분의 종교학 강의는 교양 선택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교과목도 일부 종립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 다문화 현상이 앞으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무종교인 내지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 교육을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학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든지, 종교의 지혜가 교과 내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종교간 협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 교사들의 종교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Cha, O. S. (1990). A study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in a religiously pluralistic society. *Sinhaksasang*, 69, 529-558.
- Choi, H. J. (2014). Conflict and Co-existent in the Multi-religious Society: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Religion and Culture*, 26, 73-98.
- Kim, J. (2001). Interreligious Conflict and Reconciliatio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2, 31-53.
- Kim, J. S. (2013). The Identity of Korean Religion after 1945. *Religion and Culture*, 25, 1-25.
- Kim, H. J. (2018).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Vol. 42.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475>.
- Lim, J. B. (2008).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High School and the Rights

- of the Youth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on Kang Eui-Seok Case by Seoul Higher Court. *Constitutional Law*, 14(3), 233-267.
- Paul Knitter (1985). *No other name?* NY: Orbis Books. 변선훈 역(1986), 『오직 예수이름으로 만?』, 서울신학연구소.
- An, K. J. & Yoo, Y. H. (2010). A Suggestion for Overcoming Religious Conflicts and Religious Discriminations in Korea. *Religion and Culture*, 19, 181-206.
- YTN & Digital YTN (2010.04.22.). ‘강의석 사건’ 교내 종교의 자유 인정 취지 파기환송. 검색일: 2022.04.22. (Translated in English) YTN & Digital YTN(2010.04.22.). The lawsuit of Kang Eui-Seok was quashed and remanded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freedom of religion on campus. Retrived 2022.04.22. from https://www.ytn.co.kr/_ln/0103_201004221456514061.
- 강돈구 (2003). “한국종교사-갈등에서 공존으로”. 이상훈 외 5인. 한국문화와 종교적 다양성.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ang, D. G. (2003). Korean religious history - from conflict to coexistence. Lee, S. H. et al. *Korean culture and religious diversity*. Gyeonggi: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김용표 (2010). 포스트모던 시대의 불교와 종교 교육. 서울: 정우서적. (Translated in English) Kim, Y. P. (2010). *Buddhism and religious education in the postmodern era*. Seoul: JoongWooSeoJeok.
- 김희진 (2018).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Vol. 42.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0. (Translated in English) Kim, H. J.(2018).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Vol, 42.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2475>.
- 오마이 뉴스 (2010.4.22.). 대법원, 교내 ‘종교의 자유’ 인정... 강의석, 승소. 검색일: 2022.4.22. (Translated in English) m.ohmynews.com(2010.4.22.). Supreme Court, Recognition of ‘religious freedom’ on campus. Kang, E. S. win a lawsuit. Retrived 2022.4.22. from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9657.
- 윤이흠 (1994).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경험적 접근. 윤이흠 외 19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집문당. (Translated in English) Yoon, E. H. (1994). An empirical approach to religious pluralism. Yoon, E. H. et al. *Religious pluralism and religious ethics*. Seoul: JipMunDang.
- 윤이흠 (2009). 다종교 사회와 종교의 자유. 종교문화학보 제6집. 163-175. (Translated in English) Yoon, E. H. (2009). Multi-religious society and religious freedom. *Religious and Cultural Journal*, 6, 163-175.

이동한 (2021). 한국리서치. 2021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검색일 2022, 7, 25.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2021). Korea Research. Religious Perception Survey. Status of religious population and religious activities from <https://hrcopinon.co.kr/archives/20186>.